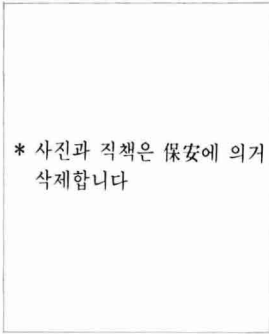


방위산업의 새 진로

- 기술개발 촉진으로 -



閔 晟 基 공학·경제학박사



과학기술 선진 7개국 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産·學·研의 역할 분담과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가운데 21세기 국가안보는 방산기술 개발만으로 보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향후 新군사력 건설을 위한 추가투자없이 재래식병기수요만으로는 기존에 조성된 방위산업 기반도 유지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방산기술 개발 투자확대의 필요성으로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생존권 확보를 위한 핵심전력 개발 및 주전투장비의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요구됩니다. 이와 함께 방산참여자의 『우리도 할수 있다』는 신념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歷代 造兵史를 살펴보면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신라의 제궁(製弓)기술, 백제의 도검 제조기술 등 주변국에 비하여 선진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도 후기에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약 및 화기(火器)를 제조하는등 일본에 비하여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와서도 세종때에 화약을 개량하고 총포 및 화포를 개발하여 150년동안 중국과 더불어 기술적 우위를 지켜왔으나, 그후 당쟁 및 세도정치로 병기제조에 소홀하여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초래하였고 일제 강점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는 병기 개발 활동의 쇠퇴는 외침을 초래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의 태동

북한은 '60년대초 방위산업으로 장비 현대화를 추진하여 '70년대초 전쟁준비를 완료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은 '69년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선언으로 '70년초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연구개발로 자주국방 달성과 중화학공업 육성을 추진하였는데, 방위산업 추진 기본전략은 민수산업을 통한 방위산업 기반 구축으로 민간기업 순수 방산점유율은 30%이내에서 육성토록 하였습니다.

발전경과를 살펴보면 관련조직 및 제도에서 '70년 국방부에 「방위산업 육성담당관」을 설치하고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하였습니다. '73년에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방산업체와 방산물자를 별도 지정·관리하였고, '75년 방위세법 제정으로 '90년까지 전력증강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개발된 국산병기는 '70년대에는 한국형 소총을 비롯해 각종 화포 및 탄약류, 군용차량, 지대지 유도탄 등 130여개 품목을 개발하였습니다.

'80년대에는 한국형 장갑차, 차기 FM 무전기, 자주 대공포, 개량형 유도탄 등 110여개 품목에 달하였습니다. 이중 국내 독자개발한 병기는 40여개 품목입니다.

현재 개발중인 주요 병기는

(保安관계상 생략)

국내생산에 따른 성과로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해외구매보다 1조 2천억원의 예산이 절감되었고, 방위산업 기술의 민수산업 활용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80년대 초까지는 방산기술이 민수산업을 선도하여 총포 제작기술이 공작기계로, 군용차량 기술이 자동차 기술로 발전되던 것이, '80년 중반 이후 상호 보완, 발전하여 민수 반도체 생산 기술이 군용무전기 소형화에 기여하는 등 상호 보완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실 진단

국내외 정세변화를 살펴보면 세계질서는 이데올로기 중심의 양극체제에서 경제와 기술중심의 다극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첨단기술 보호정책 강화로 핵심기술에 대한 이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대체전력과 통일전후를 대비한 질 위주의 新 군사력 건설소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선진 7개국 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産·學·研의 역할 분담과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가운데 21세기 국가안보는 방산기술 개발만으로 보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방산업체의 실태를 살펴보면

(保安관계상 생략)

방산업체의 경영실태는 방산분야 투자액이 2조 5천억원으로서 총투자액 9조 6천억원의 27%이나, 방산분야 매출액은 1조 5천억원으로서 총매출액의 15%로 저조한 형편입니다.

방산분야 가동률은 57%(민수 제조업 : 83.2%)이며 경상이익률은 0.1%(민수 제조업 : 2.0%)에 불과합니다.

재래식 기본병기(총포, 탄약) 분야의 소요 격감으로 가동률이 93년의 경우 前년에 비해 9% 감소되었고, 유휴 기술인력도 약 1천5백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방산업체 적자 가운데 따른 경영 악화로 유휴 기술인력 집단 감원사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新군사력 건설을 위한 추가투자없이 재래식병기수요만으로는 기존에 조성된 방위산업 기반도 유지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70년대는 국산무기 개발의지로 재래식 병기는 대부분 국산화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80년대는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와 전력화 시기압박에 따라 해외구매 위주로 추진, 국내개발장비도 대부분의 핵심부품을 해외에서 도입하여 조립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결국 해외 부품공급 및 정비 중단시, 기존에 확보된 장비의 운용유지가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할수도 있음을 예상할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부품국산화와 국산무기개발을 촉진하여 대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진로

현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주국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결정자의 『국산무기를 쓰겠다』는 의지표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생존 전략으로, 일본은 『아무리 비싸도 자체개발무기만 쓴다』는 궁극적 목표를 세워 일관성 있게 추진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니다.

이와 함께 방산참여자의 『우리도 할수 있다』는 신념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국산무기 개발을 촉진할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 첫째, 필수 국내개발 대상을 선정·추진함으로써 주요 긴요장비의 해외구매를 지양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주도식 방산기술 개발체제로 정비해야 합니다.

셋째, 전문업체 중심의 방위산업 육성체제로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국방비의 일정비율을 방산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量 중심에서 質 위주로, 보호육성 차원에서 기술개발 촉진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필수 국내개발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미래 한반도 전략환경을 전장감시/조기경보, 지휘 및 통제·전략타격 등 전장기능별로 예측할수 있습니다.

국내개발 대상장비를 선정하여 핵심 확보전력 및 주 전투장비의 성능개량을 도모하고 기타장비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국내개발을 촉진해야 합니다.

무기화가 가능한 신기술 및 필요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특히 외국이전 기피기술이나 비닉기술 등은 자체개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산기술 개발체제를 정비하여 국방과학기술을 국가과학기술정책에 연계, 추진해야 합니다. 업체주도 개발영역을 확대해야하고 사업착수시 조립 및 부품업체를 일괄 선정해야 합니다.

핵심기술 개발에 대학, 정부 및 방산업체 연구소의 참여를 확대하여 기초연구는 학계, 전문분야별 특화연구소를 지정육성하여 담당케 하고, 응용연구는 정부 및 방산업체 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방위산업 육성체제 개선방안으로 방산업체 전문·계열화체제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조립업체는 과당경쟁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생산 분야별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부품 전문업체는 유사한 기술별로 통합하여 단일업체로 조정하고, 해외도입 핵심품목의 조기 개발을 위하여 전문업체를 추가로 선정해야 합니다.

신규투자시 경제성 제고를 위해 국내소요를 고려하여 적정 생산설비투자를 유도하고 사업

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차세대를 대비한 성능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총포·탄약 생산업체의 유지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정부는 장기 소요물량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신규 특정부품 추가생산이 가능하도록 우선 지원해야 합니다. 유희 전용생산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업체도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여 방산분야 유희설비 및 인력의 대체활용방안을 모색하여 민수품 생산 확대로 방산 점유비율을 30% 이하로 개선해야 합니다.

수출 전략품목 개발을 위하여 기술도입선 다변화를 꾀해 미국 중심에서 유럽, 일본 등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제세감면 및 각종 지원제도를 유지, 발전토록 해야 합니다.

방산기술 개발 투자확대의 필요성으로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생존권 확보를 위한 핵심전력 개발 및 주전투장비의 지속적인 성능개량이 요구됩니다.

투자규모가 크고 기술 위험성이 높은 民·軍 겸용 기술과 세계 최첨단화를 위한 특정분야에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연구개발 투자를 살펴보면 투자실적이 '72년에는 3%에서 '82년 1.3%, '92년에는 2.8%에 불과한데, 선진국은 10~1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육성기금은 연구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93년 602억원에서 2005년 2,000억원 수준으로 연구개발투자비의 절대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맺 는 말

방위산업 육성체제 개선과 방산 기술개발 활성화로 21세기 신군사력 건설과 국가 과학 기술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 안보태세 확립과 과학기술선진 7개국 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